

‘무실역행!’

〈務實力行〉

전북도가 2016년 한해를 이끌어 온 사자성어다.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진 가운데서도 전북도는 나름대로 꺾직한 성과를 거뒀다.

이에 본보는 전북도가 추진한 올해 도정 5대 과제의 성과를 분석해 본다.



삼락농정과 탄소산업에서 꺾직한 성과 거뒀

‘농민·농업·농촌’ 중심 협치 농정체계 정착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전북문화관광재단 출범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신규 국가예산 9개 반영



새만금 SOC 현황

1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성공적으로 정착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전북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 농민·농업·농촌 핵심사업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꺾직꺾직한 공모사업들이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업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농민·농업·농촌’ 중심으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농민이 참여하여 만든 ‘삼락농정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협치 농정체제로 정착한 것은 전북 농정의 가장 큰 성과이다.

또한, 2013년 대비 2015년 농가소득 증가율이 17%로 9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농업·농촌분야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과 정치권의 협조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바다의 날 행사 유치 등 정부기관 및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농축수산물분야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과 농산정책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농산정책의 경우 12년 만에 다시 정상상의 영예를 안았고, 행복마을 콘테스트 평가에서도 장관상을 수상했다.

도정 3대 핵심사업인 삼락농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농생명분야 국가예산도 기재부와 정치권에 대한 꾸준한 노력으로 소스산업화센터 67억원과, 농생명 ICT 테스트베드 구축 15억원, 관산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신축 7억원, 위도 낚시관광형 다기능 여항개발 59억원,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40억원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농생명산업 본격 추진을 위해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과 함께 종자산업의 메카 기반을 조성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개소로 본격적인 식품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제14회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19개국 기업참여와 관람객 15만명과 25만달러의 수출계약 등 성공적 성과를 거뒀다.

2 창의롭고 멋진 문화 융성과 토탈관광의 안정적 기반 구축

2016년은 문화예술 기반구축과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던 한 해로 평가된다.

전북관광패스라인 전 시군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지역의 특화된 문화콘텐츠 융복합 산업육성을 위한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북문화관광재단 출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구축, 전라강영 재창조 복원사업 추진 등 문화재 원형 보존·복원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

특히, 도정 3대 핵심사업인 토탈관광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부, 기재부와 정치권에 대한 꾸준한 노력으로 서부내륙권역관광개발사업(39억원)과,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70억원) 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다.

전북도가 중점 추진 중인 전북투어패스는 이미 행자부 정부3.0 디지털 특화과제로 선정됐으며, 지난 6월에는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및 경제장관회의에 소개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관광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카드 한 장으로 싸고 편리하게 전라북도 구석구석을 팔고투 누릴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의 전 시군 발매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전라북도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16년도에 최순실 국정 농단 등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커다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토탈관광의 기반을 갖춘 한해였다면, 2017년도는 그 기반 위에 문화와 관광이 하나되는 한국체험 1번지 전북을 만드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협조를 부탁했다.

3 전북 탄소산업, 풍년기를 부른다

2016년에 이룬 전북 탄소산업의 성과가 풍년기를 부를 정도로 꺾직꺾직한 성과를 내 주목 받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탄소산업 주요 성과로는 탄소산업육성법 제정, 탄소산업 클러스터 예타 통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국가정책 반영, 역대 최대규모의 탄소산업분야 신규 대외국책사업 반영 등을 꼽았다.

탄소법 제정은 지난 10여년간 전북에서 심혈을 기울여온 전북도의 노력에 비로소 국가가 화답해 온 것이며, 그동안 지역 차원에 머물렀던 전북의 탄소산업이 대한민국 의 먹거리로 당당하게 인정받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예타 통과로 전북과 경북이 기술개발(탄소소재~중간재~핵심부품~완제품개발 등) 협력을 통해 후방산업인 탄소소재 산업이 자동차 및 건설 등의 전방산업으로 급속히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탄소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내년 신규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규모인 97개(총사업비 1,890억원)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들 신규사업 9개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도 5개(총 1,674억원)가 반영돼 질적인 면에서도 기대를 훨씬 넘는 수확을 거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전북도는 2025년까지 탄소기업 240개 유치, 매출 10조원 달성, 고용 35만명 창출 등 탄소산업 2025 비전을 발표하며 있다.

전북도에서 그동안 세계 3번째로 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1단계 탄소밸리 구축, 탄소응용제품 기

술개발, 탄소제품 상용화 사업 등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탄소법 제정, 탄소산업 클러스터 예타 통과 등 탄소산업이 국가 차원의 미래 먹거리로 발돋움 했다.

4 도민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전북도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 및 생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날로 다양해지는 복지·환경 분야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도민 모두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읍면동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 추진, 하늘 위의 응급실 ‘닥터헬기’ 운영, 옥정호 개발 관련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해결 등 10개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환경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지역 생태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한 전국 최초 ‘1시·군 1 생태관광지 조성’으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생태도시로 거듭났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생활환경개선 요인이었던 악취저감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생활밀착형 사업추진으로 악취를 대폭 감소시켰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기상재해 등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전북도 차원의 대책 및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33개 실행계획을 선정하는 등 전북형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5 새만금의 SOC 및 용지 조성 + 추진동력 확보 + 수질개선

2016년의 새만금은 2015년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달라졌다.

철도와 공장이 국가계획에 반영됐고 그동안 갈 등상황이었던 송전선로 설치가 완료됐으며 전력 시설 지중화에도 진전이 있었다.

또한 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어 부처 간 정책조정이 수월해졌고 투자자와 개발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법제화됐다.

새만금 유역 수질도 왕궁 주조제 준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수질(TP)과 복합악취가 각각 61%, 50%가 개선되는 등 2016년도에도 새만금 개발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가 많았다.

전북도는 2017년에는 제19대 대선 공약화를 통해 차기 정권에서 새만금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각 당 특위 활용, 정책토론회 정례화,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여 새만금 주요 현안 해결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농생명용지 1개 공구가 최초 완공(5공구)되고 산업단지도 추가 완공(2공구)됨에 따라 새만금의 용지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착공되고 동서도로가 속도감 있게 건설되는 등 기본 SOC 구축에도 박차가 가해질 계획에 따라 투자자와 민간개발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대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식



옥정호 갈등 해결 회의